

# 에세이·완역본·해설서...논어, 다시 읽다

## 김영민 논어 연작

- 생각의 시체를 묻으려 왔다
- 논어:김영민 새 번역
- 논어란 무엇인가
- 배움의 기쁨
- 논어 번역 비평



공자의 말,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 등으로 구성된 ‘논어’는 25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왔다. ‘논어’는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고전으로 여겨지지만, 이제는 효용이 다한 낡은 사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끊임없이 출간되는 ‘논어’ 관련 책들은 인생의 지혜를 알려주고, 현대 사회의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줄 만능 해결사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섣불리 ‘읽어보겠다’는 마음을 먹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이란 무엇인가’ 등을 읽어본 독자라면 김영민이 들려주는 ‘논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정치학, 철학, 역사에 고루 관심을 두는 그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흥미로우며 특유의 위트와 재치가 어우러져 재미있게 읽힌다.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사상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영민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가 다산권으로 구성된 ‘김영민 논어 연작’을 출간했다. 에세이부터 번역, 해설, 학술연구, 번역비평을 아우르는 프로젝트다.

저자는 “‘논어’를 오늘날의 관심에 맞게 왜곡하거나 단순화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고전 ‘논어’를 우리의 생각을 구성해온, 구성하고 있는, 구성해 나갈 자원의 하나로 간주하고 ‘논어’를 잘 다듬어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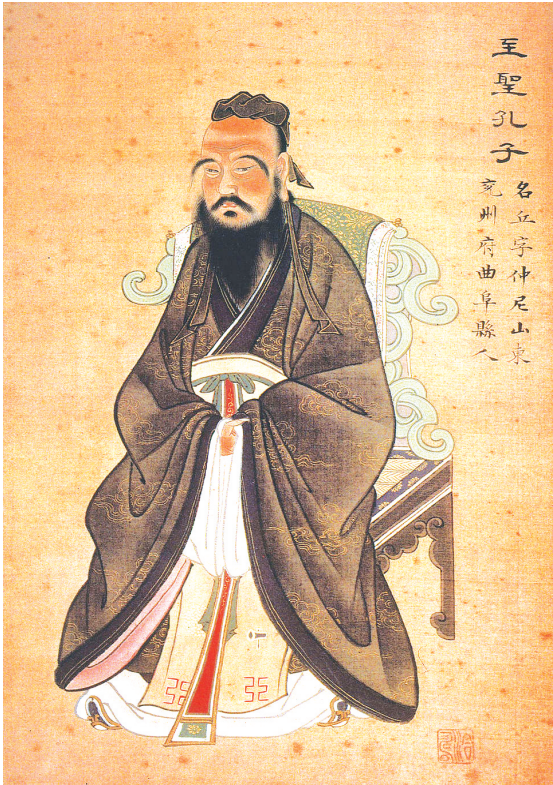
의 자원을 조금이라도 풍부하게 하려는 소박한 목표로 집필한 책들”이라고 말한다.

연작의 입문서 역할을 하는 ‘생각의 시체를 묻으려 왔다’는 논어의 주제를 소개하는 에세이다. 지난 2019년 출간된 ‘우리가 간신히 희망할 수 있는 것’의 개정 증보판으로 에세이 다섯 편을 추가했다. 기존 고전 해설의 방식에서 벗어나 김영민 특유의 글쓰기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논어’의 사상을 유쾌하게 소개한다.

‘논어:김영민 새 번역’은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완역본이다. 기존 번역의 문법적 오류와 시대착오적 해석을 바로잡고 고대 중국 문헌 연구에 기반해 번역했다. 원문과 번역문만을 간결하게 제시한 것이 특징으로 낡은 한문 번역체를 대신, 고대 언어의 의미를 오늘의 한국어로 정확하게 옮기는 데 주력했다.

‘논어란 무엇인가’는 공자와 논어 세계에 대한 해설서로 ‘논어’의 시대, 언어, 정치, 인간, 사회의 조건을 총체적으로 분석한다. 책은 ‘세속의 질서’, ‘국가와 사회’, ‘리더십’, ‘배움’, ‘자유’, ‘공자 이후’, ‘낡은 것과 새로운 것’ 등 15개 키워드를 선정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삶에 접목시킨다.

‘배움의 기쁨’은 ‘논어’의 첫 편인 ‘학이(學而)’편에 대한 심층 해설을 담고 있다. 1장 ‘배움의 기쁨’에서 시



18세기경 그려진 성인으로서의 공자. ©The Granger Collection. (사회평론 제공)

작해 16장 ‘남을 알아주는 어려움’까지를 대상으로 각 장의 구조와 사상을 치밀하게 논증한다. 더불어 ‘자루’(子路)편 18장에 대한 해석을 부록으로 실었다.

760페이지에 달하는 ‘논어번역비평’은 기존 ‘논어’한국어 번역서 45종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대안적인 번역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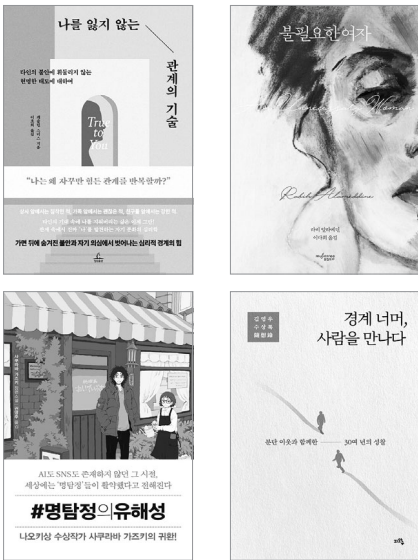
〈사회평론·각 권 1만4000원~3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나를 잃지 않는 관계의 기술(캐슬린 스미스 지음, 이초희 옮김)=타인의 기대와 인정에 맞추느라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보낸 가족 체계 이론을 바탕으로 반복되는 불안한 관계 패턴과 그 원인을 분석한다. 실제 상담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법과 단단한 자아를 구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청림출판·1만9000원〉

▲불필요한 여자(라비 알라메인 지음, 이다희 옮김)=전미도서상 수상 작가 라비 알라메인의 초기 대표작으로 사회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한 여성의 고독한 삶과 내적 성취를 탐구한다. 주인공 알리아는 홀로 번역과 독서, 사유를 이어가며 세상이 부여한 ‘불필요함’을 스스로 충만한 삶으로 뒤집는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며 무엇이 한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지 묵직한 문학적 질문을 던진다. 〈뮤진트리·2만원〉

▲#명탐정의유해성(사쿠라바 카즈키 지음, 권영주 옮김)=한때 ‘명탐정 사천왕’이라 불리며 사랑받았던 탐정과 조수가 AI 시대에 밀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 과거 사건의 결론이 정말 옳았는지를 확인하는 재검증의 여정을 시작한다. 해결된 사건과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따라



정의라 믿었던 행동이 때로는 폭력과 침묵을 남기는 ‘유해성’을 조명한다. 〈내친구사재·1만9800원〉

▲경계 너머, 사람을 만나다(김영우 지음)=스무 살도 되기 전에 국경을 넘고 가족과 생이별을 겪은 탈북 청소년들의 삶을 기록했다. 저자 김영우 이사장이 설립한 해솔학교는 아이들의 건강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이후 기술과 직업 교육을 통해 자립을 돕는다. 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학생들의 일상을 보여주며 분단 사회에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만나고 이해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지와수·1만8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내일도 그럴 거야나현정 지음)=오리, 두더지, 달팽이 세 친구가 하루를 보내며 자신의 불안과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는 과정을 담은 그래픽 노블 그림책. 각자 소중히 여기는 가치인 ‘감자’를 통해 서로를 비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과, 아크릴 잉크 수채화로 표현된 따뜻한 내면 풍경이 어린이들에게 다정한 위로와 성찰을 전한다. 〈길벗어린이·1만7000원〉

▲운동장은 사라졌지만박효미 지음, 이나무 그림=월요일 아침, 운동장이 사라졌다. 늘 승패로 갈라지던 학교 운동장이 달 모양으로 꺼지면서 날마다 지던 아이들에게 생각할 여백이 생긴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며 성장하는

어린이의 회복 탄력성을 따뜻하게 보여준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뚜벅뚜벅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과 친구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믿는 법을 배운다. 〈여름꽃·1만4000원〉

▲햇살초등학교 3학년 1반 오아리 클럽!(황혜진 지음, 김이주 그림)=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 3학년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 ‘동물복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교실에서 병아리와 오리를 키우며 생명과 책임, 배움의 의미를 동화로 풀어냈다. 동화 속 서우와 친구들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과정을 통해 관찰력과 협동심, 회복력까지 배워 나간다. 〈우리교육·1만3500원〉

# 청소년 화자 시선으로 바라본 개인의 서사

## 어른이 되는 것은 무섭다

오성인 지음



광주에서 태어나 벌교, 순천, 정읍, 인천, 의정부, 창원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다시 광주로 돌아왔다. 현재는 나주에서 산다.

오성인 시인의 ‘거주 이력’이다. 그에 따르면 잦은 이사와 작별 때문에 내성적이다. 낯가림이 많은데다 말수가 적어 한때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오 시인은 그동안 광주 오월의 상흔을 모티브로 작품 활동을 해왔다. 80년 오월의 세대도 아닌 그가 광주를 모티브로 창작활동을 펼쳐온 것은 저간의 사연이 있다.

80년 당시 그의 아버지는 1군단 본부대 수송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중이었다. 아버지는 후일 부대원들이 만든 총정봉이 군용트럭에 실려 광주에 내려와 있던 공

수부대에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 시인은 언젠가 시를 쓴다는 것은 ‘아버지의 시간 이되 동시에 저의 이야기이기’라고 했다. 그에게 광주는 ‘극심한 사회 모순과 비극의 역사’를 거론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 그 자체였다.

최근 오 시인은 청소년의 시선으로 작품을 쓴 ‘어른이 되는 것은 무섭다’(쉬는 시간)를 펴냈다.

이번 시집에서 시인은 그동안 5·18의 아픔과 상흔에 무게 중심을 뒀던 데서 한발 비껴나, 조금씩 성장해가는 개인의 서사를 청소년 화자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모습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특유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청소년들을 향해 말을 건넨다. 어른의 시각으로 접근해도 다양하고 깊은 의미를 만날 수 있다.

“(전략)//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학원으로/ 매일 정해진 루트를 돌면서 우리는// 왜 일정한 모양과 크기와 색깔을 강요받을까// 학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 알록달록한 꿈들이 풍선껌처럼/ 부풀었다가 터지고

있다”

위 시 ‘풍선껌’은 하교 이후의 풍경을 그린 작품이다.

“들뜬 마음으로 부풀어 금방이라도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았는데” 기다리는 것은 학원으로 향하는 길이다. 한참 꿈을 꾸고 자유로워야 하는데 같은 모양과 크기를 강요받는 학생들의 심상을 표현했다. “풍선껌처럼 부풀었다가 터지는” 10대들의 현실은 기실 오늘의 기성세대가 만든 ‘과중한 짐’이다.

현편 오 시인은 “고통을 넘어 진정한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겪어 내야만 하는 무수한 답장들, 그 기록들이 쌓이고 쌓여 시가 되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며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해 낸 것처럼 위태로워질 때마다 나를 이끌고 살게 했던 인연들의 숨결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013년 ‘시인수첩’ 신인상을 수상하며 창작활동을 시작한 오 시인은 시집 ‘푸른 눈의 목격자’, ‘이 차는 어디로 갑니까’ 등을 펴냈다. 〈쉬는 시간·1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디케이 주식회사

공 기 의 새 로 운 정 의  
공 간 을 빛 내 는 선택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건  
우리 집 공기의 깨끗함입니다.  
늘 깨끗한 집, 늘 건강한 삶.

모 든 순 간 을 더 건 강 하 게  
디케이 공기청정기·살균기

www.e-dk.co.kr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



